

자유연상법의 특성이 나타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해석

연 문 회* · 금 기 숙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겸임교수*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조빙교수

요 약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은 대다수의 인간이 어느 정도의 신경증과 강박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심리치료에 활용되었으며, 그 적용의 범위가 확장되어 예술과 문학 등 창작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유연상법과 예술 분야의 상호 관련성의 정립을 위하여 프로이트의 1차 정신기구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자유연상법에 의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그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시각적 이미지인 꿈의 압축과 전치가 표상으로 전이되어 언어나 이미지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꿈의 요소들은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창작의 시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연상법을 시도한 작품들로부터 고찰한 자유연상법의 특성은 연쇄적 이미지, 표상의 전이 그리고 기억의 표출로 분류되었다. 첫째, 연쇄적 이미지는 유사한 형태나 언어 등의 자극을 통해 연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표상의 전이는 심상의 이미지가 표상으로 저절로 떠오르며 전이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셋째, 기억의 표출은 과거 유년기의 기억이 자유연상을 통해 현실과 결부되어 의식의 세계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연상의 세 가지 특성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공간의 초월, 내용이나 사물의 부재와 실재를 혼합한 눈속임의 효과, 대상에 유사한 형태나 의미를 대입한 다중적 요소의 전치, 다양한 이미지를 병치시킨 이질적 요소의 결합 그리고 사고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비현실성을 극대화한 중력의 무시의 다섯 가지 시각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나 특성들은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에도 상당히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자유연상법이 예술가들의 상상을 자극하여 독자적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창작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자유연상법,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일러스트레이터, 예술의 영감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연문희, gmmuniy@gmail.com

접수일: 2017년 10월 25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4일

I. 서론

1. 연구 방법 및 목적

인간의 의식은 과거에 수용되었던 기억들이 다시 현실에서 외부의 자극과 반응하여 스스로 자각 되는 현상이다. 의식의 상태에서 수용되는 수많은 이미지와 언어들은 개인이 추구하는 의식의 방향성에서 비롯되며 매순간 경험되는 현재의 상황은 마치 영상과 같이 새로운 시간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다시 무의식에 축적되어 있다가 인간이 당면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 속에서 이미지나 언어는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 연상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평상시 의식은 무의식의 내재된 충동을 억누르고 있지만 이 충동들은 의식의 활동이 둔감할 때 의식으로 방출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방출을 돕기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자유연상법을 도입하였다.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은 외부로부터 오는 지각의 수용과 내부로부터 방출되는 충동이 다시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환자에게는 치료를,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제공하는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표출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예술가의 창작 형성과 인간의 정신구조에 대한 상관 연구를 착안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창작 의지를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에 근거한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Fitzou, 1969)와 그에 대한 논평(Davidson, 1969)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창작에 관한 연구(Kim & Gaang, 2008; Park, 1995) 등이 있으나 자유연상법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관련된 논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연상

법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것을 창작 영역에 도입한 회화와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연구하여 작품의 주제 선정과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의 개념과 특성을 밝힌다. 둘째, 자연연상법의 특성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회화의 사례에서 고찰한다. 셋째, 회화의 사례에서 고찰된 자유연상법의 특성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창작 과정에서 개인의 관념적 사고를 보다 독자적으로 시각화하여 차별화된 주제로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분석 기준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과 관련된 서적과 선행논문을 중심으로 자유연상법의 이론을 고찰한 후, 그 특성을 밝혔다.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초기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등을 선정하여 관련 서적과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화가들의 작품 과정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화가들의 작품 창작 과정의 실례에서 자유연상법의 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을 공유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부터 다섯 가지 자유연상법의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범위는 패션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작가 정신과 심미적 특성이 가미된 다양한 기법을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전문적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집(Borrelli, 2005; Dawber, 2005; Glenville, 2013; Krull et al., 2010)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자유연상법의 특성을 공유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본 연구자가 ‘연상(association)’, ‘무의식(unconsciousness)’, ‘영감

(inspiration)'과 같이 자유연상법과 관련된 주제어로 일차적으로 100개의 작품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다섯 명의 패션관련 전문가가 위와 동일한 제시어를 통해서 작품을 60개씩 선정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선정된 22개의 작품을 자유연상법의 표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용어 정의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과 관련된 전문적 용어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유연상, 자유연상법, 전이, 표상 그리고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자유연상(自由聯想, free association)은 언어에 의해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상하는 것으로 정신분석에서는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시키는 일을 뜻한다(Lee, 2010). 의식의 방임 상태에서 자극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감각적으로 지각된 인상을 언어화한 것이다(Han, 1999).

자유연상법은 언어나 그림을 보여주어 피실험자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것으로 정신적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Korean Language Society, 1994). 자유연상법은 연상한 말인 반응어 이외에도 물건이나 그림 등을 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Doosan World Institute of Encyclopedia, 1997). 본 연구에서는 자유연상법을 예술가의 심상의 근원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예술가의 작품 창작과 관련지어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전이(轉移, transference)란 장소나 지위가 변화되는 것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본능의 원동력인 에너지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Freud,

1917/2009). 전이는 아동기에 중요한 대상과 관련하여 경험된 사고, 직관 그리고 행동이 욕구로 남아 현재에 다른 대상의 관계로 전치(displacement)되는 것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94/2002). 본 연구에서는 꿈이나 상상 등 무의식이 자유연상에 의해 의미를 확장하면서 성적 충동이 자아본능과의 갈등에서 대체물로 바뀌어 시각적인 이미지나 작품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전이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상(表象, representation)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상을 의미한다. 감각을 통해 지각된 대상이 기억으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것이 기억표상(memory representation)이고, 그 지각된 여러 기억의 조각들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합한 것을 상상표상(imagination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주관에 의해 선택되어진 기억의 요소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표상은 과거의 지각대상의 재생산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심상으로 떠올려 예술창작에 있어서도 함축적인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한다(Progressive Dictionary of Philosophic Progressives, 2009). 본 연구에서는 표상을 예술가가 자유연상법을 작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의식과 의식에 나타나는 관념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메시지를 지닌 작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시각예술이다(Kho & Lee, 2017; Yu, 2000). 그리고 작가들은 아이디어와 패션이미지를 순수예술의 무한한 상상과 실험적인 시도로 인상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Yu & Park,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패션에 작가의 상상력과 예술적 감흥을 승화시키는 작품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 정의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본 절에서는 자유연상법과 예술가의 작품 창작

의 관련성을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기구 모델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억압된 무의식의 충동이 표상으로 전이되어 방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소망 충족에 관한 이론을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자유연상과 무의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자유연상법을 활용하여 무의식에 관한 인간의 심층적인 정신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처음에는 신경증 치료를 위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1896년 프로이트가 최초로 개발한 자유연상법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내적 세계의 표출을 돕는 기법으로 프로이트의 정신기구 모델 이론을 기반으로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 관련성에서 야기되는 모든 현상들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된 분석법이다.

자유연상법은 무의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는 저항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환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언어나 이미지를 통한 분석가의 개입으로 환자의 무의식에 있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의식의 세계로 이끌어 환자가 문제에 직면하게 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94/2002).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의 지동설, 찰스 로버트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과 더불어 인류가 경험해온 3대 통사로 언급되고 있다(Freud, 1900/1994). 그만큼 무의식은 인간이 이성과 사유에 의한 의지로 행동하는 과거의 사유 체계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심층 깊숙이 잠재하면서 인간의 모든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관할한다. 의식에서 억압된 경험이 내적인 세계에 침투되어 있다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 어떠한 충동이나 일로 연상되면 불안해지고, 이

것이 다시 무의식적 갈등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갈등을 자유연상법을 도입하여 치료하고자 하였고, 자유연상법으로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Freud, 1917/2009). 자유연상법으로 환자의 내적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환자에게 적절한 언어로 개입하거나 침묵하면서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내적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을 표현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는 무의식에 있었던 본인의 경험을 통합하게 되면서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연상법은 최초의 자극으로 생각을 차례대로 연상하지만, 많은 반응어가 동시에 연상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자극 없이도 심상의 순차적인 반응이 일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 속의 경험이 현재의 자극과 결합하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Doosan World Institute of Encyclopedia, 1997).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꿈의 분석과 성 에너지를 담고 있는 세계인 리비도(libido)로 설명하였다. 첫째, 꿈은 무의식을 표출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프로이트는 꿈이 잠을 방해하려는 자극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피험자는 자유연상법으로 꿈에서 떠오른 실마리 같은 어떤 표상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연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의 내적인 정신태도가 꿈의 분석에 방해를 주기도 하며, 개인의 콤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꿈의 분석에 제약이 되기도 한다.

둘째, 리비도는 예술가의 창작행위의 원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예술창작에 기울었던 열정이나 후에 냉철한 과학자로서 과학에 전념한 원인을 그의 유년기 기억에서 찾았다. 또한 프로이트는 다빈치의 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느꼈던 행복한 감성의 추억을 『Mona Lisa』의 미소로 해석하였다

(Freud, 1917/2009). 프로이트는 예술가를 본능의 충동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신경증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면서 예술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으로 자신의 소망을 작품으로 표현한다(Freud, 1973/1995)고 하였다.

성적 소망들은 무의식 속에서 현실의 논리적인 사고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 정서는 억압되어 다른 생각으로 전치되기도 한다. 무의식에는 자아의 측면인 방어, 기제 그리고 정서 등과 초자아의 측면인 규율과 도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망충동을 조절하기 때문이다(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94/2002). 결국 의식의 전 단계는 무의식이 관장하므로 예술의 창작활동으로 표현되는 모든 행위는 무의식적 환상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Freud, 1990/1994). 이 무의식적 이미지는 예술가에게 불현 듯 연상되는 이미지로 다가와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서 창조의 본질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다.

2) 정신기구 모델

프로이트는 1900년에 저서 『The Interpretation of Dreams』을 통하여 꿈의 작업에 관한 내용을 인간의 정신기구 모델로서 과학적으로 정립하였다.

프로이트는 전기에 무의식을 강조하였고, 후기에 자아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즉, 전기에는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의식으로 나눈 상징적인 지형학적 지도를 만들어 인간의 정신구조를 구분하였고, 후기에는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 생물학적인 지도로서 보편적인 정신구조를 찾고자 하였다(Gang, 2000).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영토화하며 마치 지도를 그리 듯 구분하고자 하였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꿈, 농담, 말실수 그리고 망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이 중에서 꿈의 분석으로 무의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

도하였다. 그리고 1차 정신기구 모델에서 나타나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을 통해 각 영역의 작동 원칙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연구하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내재한 역동적인 충동을 입증하였다(Kim, 2010).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적 소망과 무의식의 충동은 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환되는데, 이것은 주로 압축과 전치로 표출되어 나타났다(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94/2002).

꿈의 작업에서 압축은 꿈의 첫 번째 과정으로 유사한 여러 잠재적 요소들이 하나의 단일 요소로 통합되어 꿈의 형태로 드러난다. 둘째, 전치는 꿈 검열의 결과로서 잠재적 요소가 암시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중요한 요소가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변환되면서 꿈의 내용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꿈은 사고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본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감각형상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Freud, 1917/2009). 위와 같이 꿈 작업은 압축, 전치 그리고 사고의 시각화라는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은 생소하고 낯선 꿈에 접하게 되는 것이고 꿈에서 나타난 감각 형상들이 관념과 결합되어 형성된 생각이 퇴행하고 발전하면서 변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꿈 작업의 다른 두 가지 요소는 사고를 감각적 상징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상징적 표상화(symbolic representation)와 그렇게 표상된 이미지들을 이야기 형태로 엮어내는 과정인 이차적 정교화(secondary elaboration)이다”(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94/2002, p. 84). 이 과정에서 회상된 잠재된 사고에 의해 표상이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꿈 형성(dream residue) 과정은 수면 중 발생하는 검열의 이완에 의한 본능적인 정신 기능이 작동하면서 유아적 충동과 방어기제 그리고 갈등에서 빚어지는 표상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잠재적 사고

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의 해석을 통한 개인의 무의식 세계와 유아적 환상과 욕동, 행동과 전이에 따른 갈등 그리고 이것들의 방어를 통합하기 위해 치료에서 꿈을 사용하며 예술가의 작품 승화화도 관련지을 수 있다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994/2002).

꿈이 감성적인 형상으로 변환되는 심적인 장치는 몇 개의 심적 조직으로 구성된 마음이 내·외적인 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시작된다. 심적 조직은 심적 장치의 여러 구성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심적 과정은 지각말단에서 출발하여 운동의 말단으로 경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감지되는 다양한 지각은 기억의 흔적(memory trace)을 남기게 된다. 물론 심적 장치의 최전면에 있는 지각말단은 지각의 자극을 수용하지만 기억력을 갖지는 않고, 배후에 있는 제2의 기억조직이 제1의 기억조직의 반응을 지속적인 흔적으로 대체한다. 수용된 다양한 지각은 기억 속에서 동시적인 교차에 의해서 서로 결합된다. 이렇게 결합된 기억조직이 연상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Freud, 1900/1994). 지각 조직을 통해 지각된 내용이 기억조직으로 이동하고 자극에 의한 신경 활동은 운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즉, 일상에서 경험한 기억의 흔적들이 무의식에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해 다시 꿈 작업의 지각으로 퇴행하면서 과거의 억압된 기억의 흔적과 결합되어 여러 가지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Kim, 2010).

프로이트는 1차 정신기구 모델에서 꿈의 분석을 통해 무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The Wolf Man」과 「The Rat Man」의 임상적 사례로 확인하였다. 이 사례에서 언어, 형태, 색 그리고 향기 등 과거의 기억된 것들은 현실의 유사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개인마다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며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이트의 1차 정신기구 모델에서 무의식은 외부로부터 억압된 충동의 거대

한 창고라고 할 수 있으며 충동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이다.

충동은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에 있는 전의식에 의해 억압되며 일부는 전의식의 검열을 뚫고 의식으로 표출된다. 충동의 대리물은 무의식, 의식 그리고 전의식과 관계하여 집착하는 표상으로 각인되어 저장되어 있다(Kim, 2010). 충동은 대상이 가변적인 특성으로 성적인 충동이 예술과 문학과 같은 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대상이 전환되어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2차 정신기구 모델은 1923년 출간된 「The Ego and the Id」에서 구체화되어 이드, 자아, 초자아의 갈등에 의한 무의식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Kim, 2010). 역동적 무의식은 이드, 자아 그리고 초자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억압, 저항 그리고 갈등을 에너지의 흐름인 리비도와 관련지어 설명한 정신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것은 자유연상법에 심리적인 역동적 관계로서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트의 정신구조 이론을 살펴보면 자유연상법은 무의식적 소망이 충동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 충동, 관념, 경험 등을 의식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의식적 소망은 연쇄적으로 자유연상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인간의 내재된 심리 현상으로 프로이트는 예술가의 유년기에 대한 기억의 논평에서 유아기의 기억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표출되는 것을 유명한 예술가나 그의 환자의 사례로 증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갈등 요소나 무의식적 소망은 압축과 전치로 표상이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자유연상법은 예술에 적용되어 예술가의 무의식의 갈등과 욕망의 이미지를 의식 세계로 이끌어 내어 창작행위를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무의식적 내용들이 외현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자유연상법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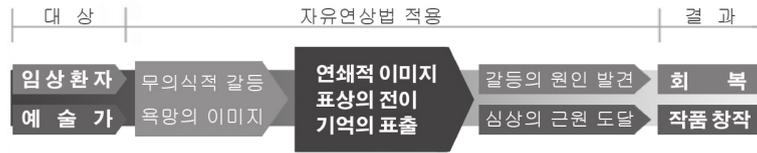


Figure 1. 자유연상법을 적용한 예술의 창작 과정.

따라서 위 이론을 종합한 결과 프로이트가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한 자유연상법의 특성은 연쇄적 이미지, 표상의 전이 그리고 기억의 표출로 추출되었다. 자유연상법의 특성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활용되는 방법은 <Figur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자유연상의 특성

1) 연쇄적 이미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자유연상법은 어떤 특정 요소를 먼저 대상에게 제시하여 연상을 돕는 데 있다(Gang, 2000). 한 요소에서 떠오른 연상은 근접해 있는 다른 연상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지각에 의한 경험과 기억의 요소와 요소가 더해져 연쇄적인 연상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은 평상시 자각하지 못했던 자극에 의해 반응하여 이미지가 연쇄적으로 상기되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연쇄적인 이미지는 살바도르 달리가 프로이트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보면서 달팽이 요리를 먹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프로이트의 두개골과 뇌를 한 마리의 달팽이와 나선형의 형태로 연상하여 프로이트의 초상을 그린 것에서 나타났다(Kim, 2004), (Figure 2). 또한 달리는 미국의 비키니 섬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핵이 폭파하는 장면을 인간의 머리카락 부분에 대입하여 묘사하였다(Kim, 2004).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무의 형태에 이질적 요소를 다중적인 이미지로 전치시켜 결합하였다(Figure 3).

사실적인 표현으로 비현실적인 세계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달리는 편집증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을 통해 상상의 이미지를 전개하였다(Hughe, 2003/2008). 편집광적 비평방법은 연달아 일어나는 이미지들이 편집광적 과정으로 사용된 것으로, 편집증의 환영에 대한 프로이트의 연구는 하나의 오브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식되는 다중적인 이미지의 개념을 이론화한 것이다(Nicosia, 2005/2007). 달리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매우 충실한 예술가로서 그의 초현실주의 편집증적 비평 방식은 정신 착란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순간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달리의 강박 관념과 욕구를 예술적인 소재로 구성하여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Kim, 2004).

『The Persistence of Memory』에서 달리의 소품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누워있는 안장을 단 말은 땅에 코를 박고 있는 화가의 코를 연상시킨다(Hughe, 2003/2008). 녹아내리는 시계의 표현은 달리가 포트 리가트의 햇빛에 빛나는 바위가 있는 풍경을 보다가 작업실에서 먹고 있던 녹는 치즈와 두 개의 시계를 우연하게 본 지각적인 경험을 연쇄적인 반응으로 결합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Nicosia, 2005/2007). 그는 녹아내리는 치즈의 기억과 시계의 만남을 개인의 관념과 현실의 상황에 은유적으로 대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지각된 기억의 시간이 현실에 그대로 재현되어 시공간의 초월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개인의 지각적 체험이 현실상황과 우연히 결합되어 나타난 연쇄적인 이미지가 사실적인 표현으로 현실감을 증대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Figure 4).



Figure 2. 『Portrait of Sigmund Freud』.
From Kim, (2004),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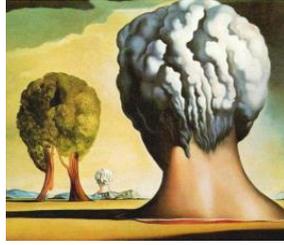


Figure 3. 『The three Sphinxes of Bikini』.
From Kim, (2004), p. 88.



Figure 4. 『The Persistence of Memory』.
From Hughes, (2003/2008), p. 110.



Figure 5. 『Human condition』.
From Seckel, (2004), p. 16.

이같이 기억된 것들은 현실의 자극으로 집착하고 있던 관념이 표출되어 순간적으로 개인마다 다른 연쇄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표상의 전이

연상은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기억의 조직 속에 있는 어떤 표상을 떼어내어 자극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표상이나 기억을 떠오르게 하지만 상기(想起)를 돌발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위장시킬 수도 있다(Kim & Gaang, 2008). 표상은 늘 연상과 결부되어 자유연상법으로 꿈을 분석할 때, 꿈의 이미지를 바로 의식으로 이끌어 표상을 떠올리면서부터 무의식의 감춰진 내용의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의 검열은 윤리적·미적·사회적 관심에서 비난 받을 만한 것들을 꿈속에서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나면서 이뤄진다. 이때, 소망이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불합리할수록 검열의 요구가 심해지며 꿈은 더욱더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된다(Freud, 1917/2009). 꿈의 왜곡은 본래의 의미를 스스로 은폐하고자 하는 저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거부감이 드는 저항과 함께 떠오르는 연상들이 실질적으로 꿈의 본질에 근접한 것이다. 그래서 꿈은 대체 표상으로 왜곡된 체험과 상상으로 소망에 도달하는 대체물로서, 예술가에게 표상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시각화되는 발단이 되어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

마그리트의 『Human condition』은 캔버스의 옆면에 칠해진 백색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게 하였다(Figure 5). 외관상 보이는 시각적 접근은 그 실질적인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차 그림 속에 감추어진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눈속임 효과를 주는 것과 같은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마그리트의 『Le Viol』은 얼굴에 몸의 유사한 요소를 대입하여 얼굴이 곧 몸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위치적 전치로 표상의 전이를 사실적으로 그렸다(Figure 6).

달리의 『Woman with a head of roses』에 등장한 여인의 얼굴은 장미 꽃다발로 대체되었는데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표상이 심하게 왜곡되어 그 본래적 의미에 도달하기 어렵게 전이되어 나타났다(Figure 7).

자유연상은 일상생활의 경험이 논리적 인과성이나 필연성 없이 파편화되어 의식의 방임 상태에서 조각난 이미지로 나타나며, 오래전 기억 속에 있었던 풍경들은 현재의 풍경과 뒤섞여서 이질적인 느낌으로 드러난다. 오래된 기억 속에 있었던 풍경들이 현실과 연관되어 낯설고 무분별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Han, 1999). 상상력은 표상을 예술적인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Eliade, 2003/2010). 이렇게 의식의 차원



Figure 6. 『Le Viol』.
From René Magritte, Belgian,
1898-1967. (n.d.).
<https://www.menil.org>



Figure 7. 『Woman with a
head of roses』.
From Woman with a Head of
Roses. (n.d.).
<https://www.wikiart.org>



Figure 8. 『The Sleeping Venus』.
From Delvaux, Paul (1897-1994). (n.d.).
<https://www.lessingimages.com>



Figure 9. 『The Traveler』.
From Magritte. (1994/1995). p. 5.

으로 표출되는 기억표상은 개인의 지각된 요소들로 또 다른 상상적 표상을 만들면서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

3) 기억의 표출

자유연상이 이미지의 형태나 언어 등의 유사성에 따라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몸으로 체험된 경험이 기억에 축적되어 있다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환상이 유아기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술가의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가의 유아기적 체험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은 기억과 재인식에 의해 있고 있었던 유년기의 이미지와 감정을 얼마만큼 현재로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Spector, 1973/1998).

폴 델보(Paul Delvaux)는 유년기에 심취했던 신화적 내용의 요소들을 현실 상황과 융합시켜 비현실적인 회화를 구축해 나갔다(Kim, 1982). 델보의 작품에서 고대 신전과 현대 건축물 그리고 해골과 인간의 공존성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인 시공간의 초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8).

달리가 한 때 종교화에 심취한 이유도 방안에 걸려있던 종교화와 7세에 사망한 형의 사진으로부터 극도의 신비롭고 혼란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

이다. 그의 예사롭지 않은 행동은 죽은 형과 비교되었던 콤플렉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달리가 자기 현시욕과 과대망상증적 초현실주의자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Kim, 2004). 달리는 『Guillaume Tell』에서도 유년기에 아버지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종교적 상징물, 남근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말 등의 표상으로 표현하여 직설적 의미가 감추어진 갈등의 관계를 요소들의 전치와 무중력의 표현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유년기의 기억 속에 있던 모조 마호가니 침대 널판, 여러 가지 게임 그리고 차 속에 담긴 마들렌 케이크의 맛과 같은 경험이 그의 창작의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가 유년기에 경험했던 것들은 1920년대 그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Spies, 1983/1994).

마그리트의 『The Traveler』는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경험한 기억속의 사물들을 대상간의 뚜렷하지 않은 연관성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놓아 상상력을 유발하게 한다(MacMillan, 2001), (Figure 9). 마그리트는 관습적인 사고의 이탈을 시도하여 일상생활에 익숙한 것들에 상반되는 성질을 대입시켜서 본래의 의미와 반대되는 이미지로 작품을 구현하였다.



Figure 10. 자유연상법의 특성과 회화에 나타난 표현 특성.

무의식에 잠재된 경험의 기억은 의식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유연상법은 환자들이 지닌 기억의 표출을 도우며 심각한 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억으로 모아진 것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방출하는 것이다(MacMillan, 2001). 모든 기억은 네트워크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은폐되어 있던 기억의 조각은 자유연상법으로 노출되어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연상의 특성에서 나타난 화가들의 작품에서의 시각적 특성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공간의 초월, 내용이나 사물의 부재와 실재에 따른 눈속임 효과, 형태나 의미의 유사성에 의한 다중적 요소의 전치, 압축과 전치에 따른 이질적 요소의 결합, 그리고 사고의 자율성에 의한 중력의 무시 등으로 드러났다.

자유연상법의 세 가지 특성과 그에 따른 화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 특성은 <Figure 10>과 같다.

III. 자유연상법의 특성이 표현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석

1. 시공간의 초월

자유연상은 무의식에 축적된 기억의 흔적이 현재의 상황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공간이 혼합된 다중적인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다시 표현되었다. 단일 화면에서 동일 인물의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중첩에서 시간의 흐름을 영상처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니엘 에그너스(Daniel Egnéus)는 생활공간인 밀라노, 로마, 친구들 그리고 그의 백일몽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Krull et al., 2010). 에그너스는 작품에서 해골이 바이올린을 켜는 괴기한 풍경으로 죽음과 삶 그리고 비현실과 현실의 왕래를 표현하고 있다(Figure 11). 에그너스는 시공간을 초월한 몽환적인 분위기로 해골과 인간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구도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비현실성을 시각화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알키포프(Elisabeth Arkhipoff)는 기



Figure 11. 『Bridge of Sighs』.
From Krull et al. (2010).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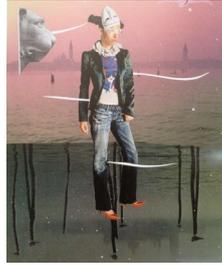


Figure 12. 『Diesel on Tour』.
From Borrelli. (2005). p. 28.



Figure 13. 2010 봄 컬렉션.
From Petrou/Man S/S 10.
(n.d.).
<http://www.dazeddigital.com>



Figure 14. 『Plans for a Woman』.
From Borrelli. (2005).
p. 80.

억된 요소인 건물, 막대기 그리고 새 등을 상상적 표상으로 재구성하여 콜라주로 작품을 구상하였다 (Figure 12).

니콜라스 페트로(Nicolas Petrou)는 2010년 남성 북 봄 컬렉션의 룩북에서 빙하가 뒤덮인 주변 환경과 복장의 부조화 그리고 배경에 투영된 새들의 부재는 시공간의 혼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Figure 13).

공간적 혼성은 오늘날 기존의 질서와 의미에 파괴적 요소를 제시하며 그것은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범주의 교류에 의한 사고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Kim, 2013). 시공간의 초월은 단일한 화면에 대상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병치되거나 축소나 확대가 되거나 겹쳐진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도 표현되었다. 시공간의 초월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복잡한 이미지를 한 화면에서 가능하게 하여 비현실적인 공간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눈속임 효과

자유연상법에서 은폐된 인간의 내적 갈등의 내용을 왜곡하는 현상도 즉각적인 눈속임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꿈의 작업에서 표상이 그 실재의 이미지를 위장하여 본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이와 같은 눈속

임 효과가 나타났다.

리차드 그레이(Richard Gray)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 상상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세계와 논리를 창조하고자 비현실적인 내용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하였다(Borrelli, 2005). 『Plans for a Woman』은 뱀이 허물을 벗으며 드러난 앙상한 골격이 옷의 뒤판의 여밈으로 응용되면서 장식적면서도 시각적인 착시를 야기시킨다(Figure 14).

로라 레인(Laura Laine)의 섬세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Scarf』는 처음에 해골로 인지되는 형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자놀이에서부터 광대와 코뼈에 걸쳐서 대칭으로 두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Figure 15). 두상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뒤엉켜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되게 보이고,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는 형상에서 비롯된 빈 공간은 해골의 이미지를 더욱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핸드드로잉과 그래픽을 혼합한 제랄딘 조오지(Géraldine Georges)의 『Jellyfish』에서는 여성이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형상으로 작품이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해파리의 형태로 여성의 복식과 합체되어 표현되었다(Figure 16).

사르트르가 이미지란 물질화된 게 아니라 의식의 시각화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사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의식에 잠재되어있던 기억들이 상상적 표상으로 전이되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눈속임 효과의 작품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3. 다중적 요소의 전치

다중적 요소의 전치는 시지각을 통해 기억된 이미지들이 유사한 형태로 즉각적인 전이가 이뤄지는 것으로, 자유연상의 특성 중에서 기억이 표출될 때 표상의 전이로 인한 연쇄적인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형태의 유사성에 의해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동시에 한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린 올로프스도터(Linn Olofsdotter)의 작품 『Predator』에서 새머리 모양을 한 가면은 새의 부리와 눈이 여인의 코와 눈에 위치하여 두 개의 형상이 전치되면서 이중적인 교차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Figure 17). 여성의 형상에서 내부의 이미지로 시선을 돌리면 새의 눈에 시선이 머물게 된다. 그 다음 시선이 머리와 부리로 연결되면서 새의 형상이 부각되어 보인다. 이것이 다시 새의 부리가 지목하는 입술부분으로 시선을 이끌면서 반복적인 사물의 전치를 유도하고 있다.

마틴 요한나(Martine Johanna)의 작품 『Kate』에

서는 머리카락과 모피로 된 의복을 전치되게 그리면서 사물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 이외의 다양한 상상을 유발시키고 있다(Figure 18).

에스더 마렌(Esdr Maren)은 콜라주를 잔인함을 지닌 미의 세계로서, 자신의 상상력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놀이라고 인식하면서 비현실적인 다양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있다(Borrelli, 2005). 마렌은 『Carnivore Fish』에서 물속을 헤엄치는 여성의 필러이는 드레스의 소매와 치마에 열대어의 지느러미를 겹겹이 포토콜라주로 대입시켜 부드럽고 우아한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Figure 19).

다양한 요소의 전치는 지각의 말단으로 들어온 시각적인 이미지가 기억조직들의 결합에 의한 연상작용으로 작가에게 독특하고 개성적인 형태와 표현을 지닌 스타일의 창작활동을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질적 요소의 결합

자유연상법의 기억조직에 관한 연상과정에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은 상상적 표상으로 재현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나타났다. 꿈의 작업에서 꿈의 내용이 압축되고 그것이 전치되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이질적 요소의 결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다중적 요소의 전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의외의 장소에서 병치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Figure 15. 『Scarf.』
From SKULL. (n.d.).
<http://lauralaine.net>



Figure 16. 『Jellyfish.』
From Krull et al. (2010).
p. 144.



Figure 17. 『Predator.』
From Krull et al. (2010).
p. 188.



Figure 18. 『Kate.』
From Juxtapoz.com. (n.d.).
<https://www.pinterest.co.kr>



Figure 19. 『Carnivore Fish』.
From Maren Esdar. (n.d.).
<http://unit.nl>



Figure 20. 『Pajaro』.
From Gabriel Moreno. (n.d.).
<https://retrospectgalleries.com>



Figure 21. 『Forest Dress』.
From Glenville. (2013). p. 73.



Figure 22. 『Ailurophobia』.
From Félix. (n.d.).
<https://www.pinterest.co.kr>



Figure 23. 『I want to go somewhere』.
From Krull et al. (2010). p. 144.



Figure 24. 『Dior』.
From AGATA
WIERZBICKA. (n.d.).
<http://www.lumarte.eu>



Figure 25. 『Untitled』.
From Krull et al. (2010).
p. 187.

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이미지가 아무런 목적 없이 접목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브리엘 모레노(Gabriel Moreno)의 『Pajaro』는 펜으로 섬세하게 얼굴들과 새를 결합시켜 인간과 새의 혼합체와 같은 기이한 형상을 띠고 있다(Figure 20).

게리 페르난데즈(Gary Fernandez)의 작품에 있는 이미지들은 미적인 감각보다는 그의 욕망에 부합되는 표현들로서 그의 유년기 시절 부모의 방랑생활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시각적인 내러티브를 창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Glenville, 2013). 그의 작품은 재즈와 같이 경쾌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상상력과 결합되어 다채로운 요소들의 병치에 의해 구성되었다. 페르난데즈는 『Forest Dress』에서 드레스 안에 우산을 받쳐 든 사람, 동물, 나무 그리고 뿌리 등을 그려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드레스로 압축되게 표현하였다(Figure 21).

마렌의 『Ailurophobia』를 살펴보면 살아 있는 고양이와 어깨에 결합시킨다던지 동물의 발 부분을 치마에 덧붙인다던지 하여 복식의 일부분에 의외의 사물들을 복 잡하고 미묘하게 대입시켜 표현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Figure 22).

작가들의 이질적인 요소의 전치로 나타난 작품들은 작가들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기억의 표상이 현실에서 드러난 상상적 표상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5. 중력의 무시

자유연상의 자유로운 발상법은 기억조직의 순간적인 이동과 결합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무의식과 의식을 오가는 연상의 자유로운 흐름의 현상이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지속적으로 무중력의 상태를 표현한 작품들이 부각되어 나타

나는 현상은 초기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아이디어 스케치에 중점을 두어서 인체와 의복을 그린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과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대의 그래픽 기법의 용이한 표현이 합쳐져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카즈키 다카마스(Kazuki Takamatsu)는 『I want to go somewhere.』에서 데스 맵(Death Map)을 사용하여 천상의 가녀린 여성이 무중력 상태의 떠있는 작품을 무채색과 밋밋한 화면의 터치감으로 표현하였다(Krull et al., 2010), (Figure 23).

아가타 위저빅카(Aagata Wierzbicka)는 사실적인 표현과 과감한 생략으로 의복과 신체가 과편화되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작품을 그렸다(Figure 24).

나탈리 브로켓(Natalie Brockett)의 작품에서 물고기들은 초록 드레스 사이를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상상력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Figure 25).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는 지표면이 없다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곧 추락으로 연결되어 심리적인 불안감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고,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공중누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간성과 정신세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Bollnow, 1963/2011).

작품에서 중력을 무시하고 인체가 공중에 떠있는 것은 불안한 심리, 현실에서의 해방 그리고 공허한 내면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현대사상사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심리층을 의식의 차원으로 이끄는 자유연상법을 창안하면서 사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계까지 영향을 주었다. 프로이트의 1차 정신기구 모델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무의식의 표출 형태는 꿈으로 자유연상법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자유연상법이 예술가에게 활용되는데 있어서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소망인 꿈의 다중적인 세계의 논리가 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위의 이론으로부터 자유연상의 특징은 연쇄적 이미지, 표상의 전이 그리고 기억의 표출로 분류되었다. 첫째, 연쇄적 이미지는 유사한 형태나 언어 등의 자극에 따라 연상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났다. 둘째, 표상의 전이는 기억의 조각들이 무의식에서 서로 융합되어 심상의 이미지가 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셋째, 기억의 표출은 몸으로 체화된 유년기의 경험의 기억이 현실의 상황과 결부되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연상의 세 가지 특성과 자유연상법을 도입한 화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로 다섯 가지 조형 특성이 분류되었고 이것은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도 그대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첫째, 유년기의 경험과 기억이 현실의 자극에 반응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공간의 초월이 나타났다. 둘째, 꿈의 표상이 그 실재의 모습을 위장하여 한번에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눈속임의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시지각으로 기억된 이미지들이 유사한 형태로 즉각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는 다중적 요소의 전치가 드러났다. 넷째, 무의식의 이미지들이 압축되어 무분별하게 접목되는 이질적 요소의 결합으로 표현되었다. 다섯째, 무의식과 의식을 오가는 비가시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한 중력의 무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다중적 요소의 전치와 이질적 요소의 결합은 자유연상법과 관련하여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자유연상법의 특징을 지닌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확인하면서 예술가는 자유

연상법으로 얻은 창작과정으로 자신의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자유연상법의 특성의 도출 과정과 자유연상법이 나타난 회화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사례가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시도가 예술가들이 그들의 내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기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후학들이 본 논문을 바탕으로 무의식이 외현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 자유연상법을 예술가의 창작행위와 연관 지어 방법론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GATA WIERZBICKA. (n.d.). *LUMARTE*.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www.lumarte.eu/en/agata-wierzbicka/agata-wierzbicka-street-fashion-dior-w2248>
-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002). *정신분석 용어사전*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Lee, J. H. Trans.). Seoul: Korea Psychological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 Bollnow, O. F. (2011). *인간과 공간* [Man and space] (Lee, G. S., Trans.). Seoul: Ecolivres.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 Borrelli, L. (2005). *Fashion illustration next*. London: Thames & Hudson.
- Davidson, C. (1969). Free association and the artist. *Leonardo*, 2(3), 332-333.
- Dawber, M. (2005). *New fashion illustration*. London: Batsford.
- Delvaux, Paul. (1897-1994). (n.d.). *LESSING*.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lessingimages.com/viewimage.asp?i=40120221+&cr=1&cl=1>
- Doosan World Institute of Encyclopedia. (1997). *두산세계 백과사전* [Doosan world encyclopedia]. Seoul: Doosan Dong-A Co., Ltd.
- Eliade, M. (2010). *이미지와 상징* [Images & symbols] (Lee, J. S., Trans.). Seoul: Kachi Publishing Co., Ltd.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Félix, A. (n.d.). *Pinterest*.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379428337329216919>
- Fitzou. (1969). An artist's reaction to the barricades of Paris. *Leonardo*, 2(1), 57-59.
- Freud, S. (1994). *정신분석입문*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Kim, D. G., Trans.). Seoul: Dongsuh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00)
- Freud, S. (1995). *프로이트 예술 미학 분석* [The aesthetics of Freud] (Kim, Y. J., Trans.). Seoul: Geulbut.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Freud, S. (2009). *정신분석 입문*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Choi, S. J., Trans.). Seoul: Doddulesaghim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17)
- Gabriel Moreno. (n.d.). *retrospectgalleries*.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retrospectgalleries.com/product/bird>
- Gang, K. S. (2000). 자아와 이드에 나타난 프로이트의 두 번째 지형학 [Freud's second topography from the Ego and the Id]. *비평문학*, 14(14), 5-22.
- Glenville, T. (2013). *New icon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 Han, Y. W. (1999). *소설학 사전* [A literary dictionary]. Seoul: Moonye Publishing Co., Ltd.
- Hughes, R. (2008). *Dali 명작 400선* [Dali' 400 famous masterpieces] (Park, N. R., Trans.). Seoul: Maroni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Juxtapoz.com. (n.d.). *Pinterest*. Retrieved December 15, 2017,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414190496960600143>
- Kho, J. M., & Lee, J. H. (2017). The concept of temporal types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digital fashion illustration: Focused on comparison of digital painting and digital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Fashion Design*, 17(2), 111-125. doi:10.18652/2017.17.2.7
- Kim, J. G. (2004). *달리, 나는 세상의 배꼽* [Dali, i am the navel of the world]. Seoul: Pyeongdan Art.
- Kim, K. M. (1982). *폴 델보의 회화 연구* [A study on Paul Delvaux' paint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S. (2010). *프로이트 & 라캉: 무의식에서의 초대* [Freud & Lacan: An invitation to unconsciousness]. Paju: Gimmyoung Publishing.
- Kim, S. J. (2013). Characteristics of hybrid expression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1), 59-74.
- Kim, Y. S., & Gaang, B. S. (2008). A study of formative changes in fashion effected by unconsciousnes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9(1), 195-207.
- Korean Language Society. (1994). *우리말큰사전* [A large dictionary of Korean letters]. Seoul: Korean Language Society.
- Krull, A., Klanten, R., & Hellige, H. (2010). *The beautiful illustration for fashion and style*. Berlin: Gestalten.
- Lee, H. S. (2010). *국어대사전* [A bilingual dictionary]. Paju: Minjungseorim.
- MacMillan, M. (2001).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reud's methods of free association and interpretation. *Psychological Inquiry*, 12(3), 167-175.
- Magritte, R. (1995). *마그리트* [Magritte] (Jo, G. S., & Lee, D. S., Trans.). Seoul: Yekyong Publishing Co. (Original work

- published 1994)
- Maren Esdar. (n.d.). *unit*.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unit.nl/portfolio/illustration/maren-esdar>
- Nicosia, F. (2007). *달리: 무의식의 혁명* [Dali: The revolution of unconsciousness] (Jong, E. M., Trans.). Seoul: Mamoni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Park, S. M. (1995). *A study on the fantastic image expression through un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etrou/Man S/S 10. (n.d.). *DAZED*.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www.dazeddigital.com/fashion/gallery/4281/2/petrou-man-s-s-10>
- Progressive Dictionary of Philosophic Progressives. (2009). *철학 사전* [Philosophic dictionary]. Chungju: Jungwonmunhwa.
- René Magritte, Belgian, 1898-1967. (n.d.). *Menil*.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menil.org/collection/objects/1585-the-rape-le-viol>
- Seckel, A. (2004). *Masters of deception: Escher, Dali & the artists of optical illusion*. Toronto: Sterling.
- SKULL. (n.d.). *LAURA LAINE*.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lauralaine.net/portfolio/#>
- Spector, J. J. (1998). *프로이트 예술미학* [The aesthetics of Freud] (Sin, M. S., Trans.). Seoul: Pullbit.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Spies, W. (1994). *막스 에른스트* [Max Ernst] (Park, S. C., & Lee, J. H., Trans.). Pajul: Youlhwadang Publishers.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Woman with a Head of Roses. (n.d.). *WikiArt*. Retrieved October 20, 2017, from <https://www.wikiart.org/en/salvador-dali/woman-with-a-head-of-roses>
- Yu, Y. S. (2000). *Study on the expression of visual image in fashion illust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Yu, Y. S., & Park, M. Y. (2001).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visual image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4), 783-794.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Fashion Illustration through the Free Association

Yean, Mun Hee⁺ · Geum, Key Sook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and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Abstract

Sigmund Freud's free association was originally invented and used for curing patients to express the unconscious drives and thoughts. The use of the free association contributes to boosting creative thoughts through aiding artists to express their unconscious ideas and representations more freely and uninhibitedly. This study aims to find and explain the theoretical ground and signification of the free association analyzing paintings, and fashion illustrations by the method of the free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design inspiration and ideas.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paintings of the artists who used the free association and proposed three characteristics of it. Firstly, serial or continuous images appear through the association and interaction of similar forms and words. Secondly, the transference of ideas and representations takes place automatically or spontaneously when artists try to express their unconscious thoughts. Thirdly, the expression of memories comes out to the conscious world, when the past memories are combined to reality through the free association. I could also discover in the works of the painters who actively adopted Freud's theory that the above-mentioned three characteristics present five specific characters of their parts: transcendence of the space, deception of eyes, displacement of the various elements and ignorance of gravity. Through this study, I realized Freud's free association enables artists to perform more sophisticated work, releasing the unconsciously oppressed inner conflict and impulse to the conscious. I hope this method can be useful for artists in their work and especially, fashion illustration can be a tool to stimulate and actualize artists' imagination for discovering creative artistic motifs.

Key words : free association, fashion illustration, fashion illustrator, inspiration of art

